

유희동 기상청장, 논산 호우 피해 현장 방문

- 추가 피해 없도록 위험기상 감시에 총력 대응 -

유희동 기상청장은 7월 28일(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립납골당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논산시(연무)에는 7월 13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 289 mm, 1시간 최다강수량 48.5 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유 청장은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한 비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방재 대응을 위해 유사한 상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호우 재해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책임자	과 장	최돈영 (042-363-3500)
		담당자	주무관	이은영 (042-363-3501)



| 논산 재해 현장 방문(왼쪽에서 두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